대행 선사 삶 · 사상 · 유훈, 미국에 알리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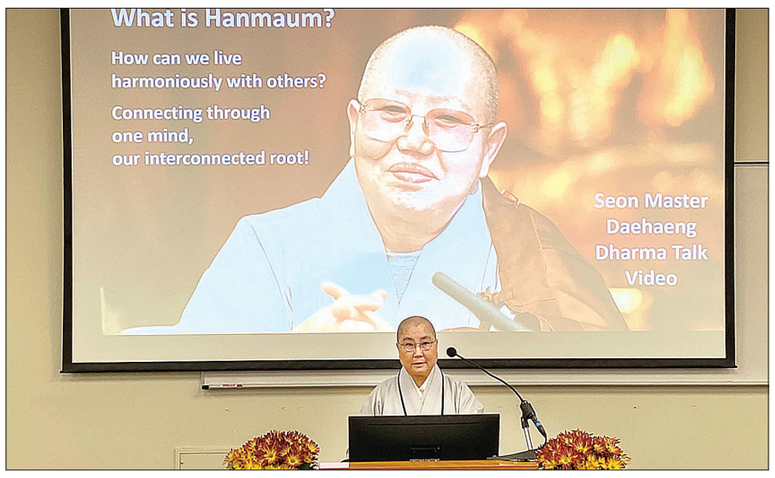
혜찬 · 혜유 스님, 10월 1~3일 방미
브리검영대학 국제심포지엄 초정돼
대행 사상, 칠보 · 구정탑 주제 발표

주인공 관법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했던 묘공당 대행 선사의 사상과 선사가 창건한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조성된 칠보탑, 구정탑의 의미가 미국에 전해졌다.

한마음선원 산하연구소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과 한마음아카데미 연구실장 혜유 스님(한마음선원 독일지원)은 10월 1~3일 열린 미국 브리검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과 종교 국제연구센터가 주최한 '제30회 법과 종교 국제 심포지엄' 에 발표자로 초청돼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미국에 알렸다.

두 스님의 참여는 지난해 대행 선사 열반 10주기를 맞아 열린 한마음과학 국제학술대회에 초청됐던 브렛 샬프스(Brett G. Scharffs) 브리검영대 법과 종교 국제연구센터장과의 인연으로 이뤄졌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함' 을 주제로 열린 국제심포지엄에서 혜찬 스님은 '모두 함께 자유인이 되는 길(The Path for All Beings to Become Free Together)' 을 통해 대행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소개했으며, 혜유 스님은 '탑, 자유와 평화의 상징(Pagoda as a Symbol of Freedom and Peace)' 을 통해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에 조성된 칠보탑과 구정탑의 의미에 대해 발표했다.



한마음과학원 운영위원장 혜찬 스님이 10월 3일 미국 브리검영대 국제심포지움에서 대행 선사의 삶과 사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대행 선사의 생애를 소개한 혜찬 스님은 "대행 사상의 핵심은 누구나 본래 자성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행 선사는 일체가 찰나찰나 공해서 나투고 돌아가기 때문에, 깨달음에 있어서는 남녀나 비구, 비구니 차별없이 만물만생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심포지엄에 함께한 150여 명의 동참자들.

이어 "선사는 종교를 떠난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종교란 이름이며, 같은 지구 안에 살면서, 사람들이 각각의 살림살이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 놓은 것뿐이니 종교를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님' 을 강조하셨다"고 소개했다.

"대행 선사는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원리로 작용한다' 고 했다"고 밝힌 혜찬 스님은 "가정, 사회, 국가도 공생이 된다면 전 세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나고 대자유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혜유 스님은 "한마음선원의 칠보탑(우주탑), 구정탑(도량탑)이 한국불교의 새로운 탑 조성양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하며 그 의미를 전했다.

스님에 따르면 법당 위의 칠보탑은 부처님을, 도량탑은 부처님 가르침을, 대행 선사의 동상은 승가를 상징하는 것으로 불교의 삼보인 '불 · 법 · 승' 을 한 도량에 구현했다.

혜유 스님은 "대행 선사는 공생, 공심, 공용, 공체, 공식의 오공(五空) 사상을 칠보탑과 구정탑에 구현했다. 이에 대해 선사는 '모든 중생이 대자유를 성취하라는 상징' 이라고 했다"면서 " '탑돌이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갖춰진 주장자를 밝혀 내면의 탑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그것을 이루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곧 에너지의 중심처가 된다' 고 대행 선사는 말씀하셨다"고 조성 의미를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제심포지엄에는 70여 개국에서 종교지도자, 대학 교수, 비영리단체 활동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불교와 현대의학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달라이라마 주치의 배리 커진 스님 인터뷰

달라이라마의 양방주치의로 유명한 배리 커진(Barry Kerzin) 스님은 최근 의료전문가들을 위한 웹저널인 '매드 스캐이프' 와의 인터뷰를 통해 불교와 현대의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지난 10월 6일, 매드 스캐이프는 스님의 인터뷰를 특별 보도했다.


매드 스캐이프와 인터뷰하는 커진스님.
사진출처=매드스캐이프 인터뷰 화면 캡쳐

커진 스님은 현재 자비를 의료의 핵심사명으로 삼았다. 2015년에 환자의 치료와 정서적 건강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의료 전문가에게 연민, 마음챙김, 회복력을 교육하는 '이타주의 의학 연구소' 를 설립했다. 또 불교철학과 의학의 교차점을 연구하기 위해 '인간 가치 연구소' 도 설립했다.

커진 스님은 "현재 자신이 세운 두 연구소에서의 강의는 물론 달라이라마와 다람살라의 사람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매주 2회 온라인으로 강의를 진행하며 매일 최소 2시간씩의 명상, 주요 의학저널의 최신연구결과 확인 등 바쁜 나날을 보낸다.

스님은 "비록 일반 사회인들처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매우 바쁜 일정을 보낸다" 면서 "공감을 넘어 자비로 나아가는 실천이 나의 강한 힘의 원천이다. 지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커진 스님은 달라이라마의 주치의이자 불교 출가자라는 입장에서 다른 의료종사자들에게 조언을 해달라는 매드 스캐이프이 요청에 "의료종사자들은 환자들에 대해 지속적인 자비심을 가지고 도움을 주려는 동기를 유지하면서도 환자의 고통과는 감정적인 거리를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자신이 연구하는 모든 의학적 핵심은 바로 자비라고 설명하며 "환자에 대한 자비도 중요하지만, 자기자신에 대한 자비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스님은 "우리는 자신을 많이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를 더욱 취약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잘 안 된 일에 연연하다가 급락하곤 한다. 그걸 검토하고 다음번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잘 된 일을 축하하고 기뻐하면서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도 필요하다"면서 "예를 들어 나는 항상 '내가 달라이라마의 주치의라니! 이건 꿈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꼬집어 보곤한다"며 웃어보였다.

박영빈 객원기자

옷 갈아입는 태자 불상…겨울옷으로 환복

츄구지, 쇼토쿠 태자상 환복법요
내년 5월 31일까지 본당서 공개

고대 일본불교에서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쇼토쿠 태자(聖德太子). 쇼토쿠 태자는 일본에서는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여겨져 태자신앙(太子信仰)이라는 고유의 신앙도 생겨났다. 이 태자신앙에서 중요한 사찰로 꼽히는 나라의 츄구지(中宮寺)에 봉안된 쇼토쿠 태자상에 옷을 갈아 입히는 법요가 봉행돼 화제다. 지난 10월 2일 일본의 '나라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은 츄구지에서 봉행된 환복 법요에 대해 보도했다.

츄구지는 7세기 초반, 쇼토쿠 태자가 어머니를 위해 건립한 사찰로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 사찰로도 유명하다. 이곳 본당에 안치된 본존인 보살반가상은 일본의 대표적인 국보로 꼽힌다. 이 본존의 협시로 안치된 '쇼토쿠태자이세상(聖德太子二歲像)' 은 12세기경에 조성된 불상으로 쇼토쿠 태자가 2살 때 자리에서 일어나 삼보께 예경했다는 설화를 묘사한 것이다. 츄구지에서는 매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이 태자상에 옷을 입히는 법요를 봉행하고 있다.


태자상에 새옷을 공양올리는 히노니시 코존 스님과, 여름동안 입혀졌던 옷(우측).
사진출처=요미우리 신문

지난 10월 1일, 츄구지 본당에서 열린 법요에서 태자상은 지난 6월 입혀진 여름옷을 벗고, 겨울옷을 입었다. 이번에 공양된 옷은 복숭아꽃과 소나무잎을 수놓은 두꺼운 녹색 비단 옷으로 자수는 교토에 거주하는 일본전통자수의 일인자인 나가쿠사 토시아키 작가의 작품이다.

나가쿠사 작가는 츄구지가 소장한 자수 불화인 '천수국만다라수장(天壽國曼荼羅繡帳)' 의 복원 및 재현을 위해 츄구지와 인연을 맺었고, 연구결과물의 일환으로 지난 천수국만다라수장의 도안과 기법을 복원하여 6월 태자상에 입히는 여름용 의복을 제작한 것을 인연으로 겨울용 옷도 제작하게 된 것으로 전했다.

법요식에서 츄구지에 의복을 공양올린 나가쿠사 작가는 "쇼토쿠 태자에 대해서 연구하던 중 태자가 '복숭아꽃은 한 때에 번성하나, 소나무는 만년에 번성하기에 소나무를 사랑한다' 라고 말한 것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태자상에 겨울옷을 입힌 츄구지의 주지 히노니시 코존 스님은 "귀엽고 예쁜 옷이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며 옷을 공양 올리는 데 조력한 모든 대중에 감사를 표했다. 새로 옷을 입은 쇼토쿠 태자상은 내년 5월 31일까지 츄구지 본당에서 공개된다.

박영빈 객원기자

"아시아계 미국인 불자 비율 감소"

퓨리서치센터 2023년 연구 결과

아시아계 미국 성인 불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의 10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10월 11일 "자신을 불교도라고 밝히는 아시아계 미국 성인들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 성인 중 '무교' 라고 답한 사람은 2012년 26%에서 올해 32%까지 증가했다. 또 2012년만 해도 '불교' 라고 답한 사람은 14%였지만 올해는 11%로 줄었다. 다만 응답자의 21%는 '불자는 아니지만 조상 · 문화 등 이유로 불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고 답했다.

세부적으로는 아시아계 중에서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출신들이 자신을 불자라고 밝히는 비율이 높았다. 자신을 '불자' 라고 밝힌 베트남계 미국인은 무려 37%에 달했고, 이 밖에 동남아시아계 미국인은 38%였다. 반면 동북아시아계의 경우 자신을 '불자' 라고 밝힌 비율은 한국계 3%, 중국계 12%, 일본계 19% 등에 그쳤다. '불자는 아니지만 조상 · 문화 등 이유로 불교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고 느낀다' 고 답한 비율은 한국 28%, 중국 38%, 일본 62%였다.


캘리포니아주 하시엔다 하이츠에 있는 시라이 사원. 사진출처=wikimedia.org

박정현 객원기자

제11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3년 10월 18일(목) ~11월 16일(목)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 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3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2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제20회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 학술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조론연구
조론오가해
(세트/전6권)
장경각

올해의 불서
불교출판문화상
붓다북학술상 수상작들


2022년 (19회)
붓다의 입멸 에피소드 연구
민족사


2021년 (18회)
조선 불교사상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20년 (17회)
중앙아시아에서 꽃피운 실크로드의 대제국 천산 위구르 왕국의 불교회화
진인진


2019년 (16회)
백곡 처능, 조선 불교 철폐에 맞서다
조계종출판사


2018년 (15회)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아시아총서25)
산지니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www.buddhabook.co.kr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돈암동일하이빌B1 ㈜운주사 Tel. 02-953-7181